

소상공인과 ‘일회용품 없는 전북 만들기’

전북자치도, 전주·익산 등 카페 64곳과 자발적 민관 상생 캠페인 협약 맺어… 전북형 그린 커머스 확산 신호탄

전북특별자치도가 ‘일회용품 없는 전북’을 위해 세 번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며,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3일 김관영 도지사와 도내 카페 64개소의 소상공인 대표들이 함께 ‘일회용품 없는 전북 만들기’ 자발적 협약(3차)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민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일상 속 소비문화의 중심인 카페업체들이 주체가 되어 민·관 상생 캠페인으로 추진된다.

지난 1·2차 협약이 공공기관 및 기업 중심이었다면 이번 3차 협약은 전주, 익산, 남원 등 도내 8개 시군의 카페 64곳이 참여하여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도와 도내 소상공인 카페가 손잡고 진행한 민관 상생 캠페인이다. 도는 협약에 참여한 카페에 다화용컵 세척·회수 인프라 지원, 미니배너 등 홍보물 제공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협약 카페에는 ‘일회용품 없는 전

북’ 미니 배너가 부착되어, MZ세대 소비자와의 공감대를 넓히고 친환경 소비로의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 카페 대표는 “플라스틱을 줄이려면 분명 비용과 노력이 더 들지만, 오히려 손님과 환경 이야기를 나누며 단골이 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변화에 함께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협약에 그치지 않고, 도민 생활 곳곳에서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 인식 전환을 이끌고 있다. 6월 중에는 △국민연금공단 본부(11일) △

전북특별자치도청(19일) △KBS전주방송총국 본관(24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27일) △남원시청(30일)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캠페인이 연이어 진행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금은 커피 한 잔도 환경을 위한 선택이 되는 시대”라며, “일회용품 감축은 법보다 앞선 습관의 변화이자 문화운동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실천이 그린 전북을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피서지 주변 음식점 대상 불법행위 단속

전북 특사경, 해수욕장·계곡 등 피서지 주변 대상… 내달 1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완주 운주계곡, 진안 백운동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50여 개소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무신고 음식점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이며, 특히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하천·계곡 주변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면,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 영업행위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홍보

30일까지 위택스,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올해 제1기 분 자동차세 67만 건, 63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1기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에 대한 부과분이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연세액(1월, 3월)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등을 고려해 부과하고 있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세액을 경

감해 차등 부과된다.

올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자동차세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 ARS(1422-11)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시군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

이회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부 방법을 미리 확인해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아이들의 꿈,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펼치도록 지원

전북자치도, 13일 ‘초록우산 아이리더 발대식’ 행사 개최

기업 및 단체 후원자들과 아이리더 아동들과의 만남



지난 13일 더메이호텔에서 ‘2025년 초록우산 아이리더 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더메이 호텔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와 함께 ‘2025년 초록우산 아이리더 발대식’을 개최하고, 도내 아동 인재들의 꿈과 재능 성장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기업 및 단체 후원자, 아이리더로 선정된 아동과 가족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하며 아이들의 시작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또한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도내 아동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고 있는 지역 후원자들의 따뜻한 나눔이 빛을 발했다.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로 15년째를 맞았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전북지역 아이리더로는 총 45명이 선발되었으며, 체육 분야 25명, 예술 분야 14명, 학업 분야 5명, 자율 분야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에게는 총 2억 8천만 원 규모의 후원금이 지

원되며, 아동 1인당 최대 1천만 원 이내의 후원을 통해 분야별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받을 예정이다.

아이리더 아동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 멘토의 지도 아래 훈련과 진로 설계를 지원받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이번 발대식은 아이들에게 공식적인 출발점이자 자긍심을 심어주는 뜻깊은 행사로 마련됐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경제적 이유로

아동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도내 아이리더들이 한 걸음씩 꿈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 본부는 오는 10월 중 ‘2028년 아이리더’ 선발을 위한 신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063-276-28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장마철 오기 전에 치운다’… 전북자치도, ‘하천 정화 주간’ 가동

장마철 대비 하천·하구 유입 쓰레기 선제 제거로 수질오염 예방

전북특별자치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과 하구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수거하고,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5년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주간’을 16일부터 20일까지 운영한

다고 밝혔다.

이번 정화 주간은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시 추진하는 범국민 환경정화 활동이다.

전북자치도 역시 각 시군별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생활 쓰레기

와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다.

도내 각 시군에서는 하천 및 하구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본격적으로 수거하기 위해 지역 유관기관, 사회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정화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트랙터·굴삭기 등 현장형 장

비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실질적인 폐기물 수거와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정화 주간을 계기로 하천 유입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역 내 수질 보전 및 수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정화 활동과 주민 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도민의 환경 의식 제고에도 힘을 쏟는다.

/이만호 기자

안전문화확산 온라인 퀴즈 이벤트

도, 풍수해 대비 행동요령·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
정답자 50명 추첨… 2만원 상당 생활안전용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풍수해 및 물놀이 안전과 관련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로 태풍, 국지성 집중호우 등 풍수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풍수해 대비 행동요령을 도민 모두에게 상기시키고, 여름철 물놀이 시즌을 대비하여 마련되었다.

퀴즈 이벤트는 풍수해 행동요령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등 2가지 테마를 대상으로 2주 간격으로 진행된다. 전북자치도 공식 SNS 계정(페이스북, 카카오톡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소식란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안전수칙을 확인한 뒤 정답을 댓글로 작성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특히, 이번 이벤트에 다수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전수칙만 읽어 보면 누구나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정답자 50명(회차당 25명)을 추첨하여 2만원 상당의 생활안전용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시기, 계절에 맞는 안전테마를 선정하여 14개 시군 및 민간단체와 캠페인을 실시(매월 4일)하는 등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전북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의식이 높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퀴즈 이벤트,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도민 안전문화 확산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謹弔

삼가 알려드립니다

故 박영순(조봉성 전주매일신문사 대표이사 장모)씨가 6월 16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배우자: 박재식

녀: 박이슬, 박서리

사 위: 조봉성, 이호철

외 손: 이성민, 이성원, 조다원

빈소: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일시: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9시 30분

장지: 전주승화원 / 금상동성당

謹弔